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 보성군, '제1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대상 수상

### 재난안전 4개 분야 평가...상사업비 1억 원 확보



보성군은 11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1회 다산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다산안전대상은 전라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안전 평가로 다산정약용 선생이 묵민심사에서 강조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에 대한 애민사상을 도내 각 기관·단체가 적극적으로 실천

하여 '안전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자체 심사는 2018년도에 실시한 △재난관리평가 △안전문화운동평가 △안전한국훈련 및 재해예방사업평가 등 4개의 재난안전 평가의 성과·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군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군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전 군민 대상 각 연령·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주택 인근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안전정책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와 재해예방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라남도 주관 안전문화운동평가에서 대상(1위), 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안전분야 평가 전관왕을 석권하며 '안전보성'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 광양시, 농촌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100% 만족'



광양시는 지난해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100% 만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농촌지역 공중목욕장 소재 6개면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 체조를 비롯한 요가, 에어로빅, 라인댄스 등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전·사후 기초조사, 운동, 목욕, 만성질환예방·영양교육 등 통합보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년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행사 참여 어르신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평가와 효율적인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도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후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어르신이 100%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농사일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99.9%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건강생활 실천 및 자가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김제희 건강증진과장은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식생활 및 운동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참여 속에 지난 1월 2일(수)부터 운영하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 함평군보건소, 혹한기 대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총력

함평군보건소가 본격적인 혹한기를 대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한다.

11일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 건강관리팀은 내달까지 취약노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930가구를 직접 방문해 혈압, 당뇨

제가만 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방문간호사 등 전문 인력 20명을 구성해 2019년도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총 2,724개 가구를 등록·관리하며 투약 확인, 체온관리 등의 의료지원서

비스를 중점 제공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 상 겨울철 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취약계층 집중 방문건강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 곡성군,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로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

곡성군이 1월말까지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석면 날림으로 군민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

행하고 있다. 올해 곡성군의 사업 대상 목표는 슬레이트 철거 127가구, 지붕개량 25가구 취약계층 대상 총 152가구이다. 총 사업비 5억2천만 원을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로 사용한 주택·부속 건축물(참고 등)이다. 한가구당 최대 336만원이 지원한다.

사업 시행 전에 슬레이트를 철거한 건축물은 지원하지 않으며 대상자를 2월초까지 선정 후 3월부터 적격업체를 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곡성=김광휘 기자

## 순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로 지원 전환

### 선택권 넓혀 편리하게 이용

순천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원한다. 이전에 위생물품(생리대)을 현물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

바우처로 지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청소년의 선택권을 넓혀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매처는 온라인(지마켓, 육선, 삼성쇼핑몰, 올리브쇼핑몰), 오프라인(이마트, CU편의점)에서 사용자가 가능하며 구매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11세에서 18세인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단 한번의 신청으로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12만 6천원을 지원한다.

순천=김승호 기자



## 순천만에코촌 '한국관광품질인증제' 통과

순천시가 직영하고 있는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이하 순천만 에코촌)이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심사를 통과하여 '한국관광품질인증제' 분야 인증을 받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이번 평가에는 3개월에 걸친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및 인증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 관광 품질인증 평가위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품질인증대상은 숙박 분야로, 평가항목은 기반구조(인적지원, 건물 및 시설, 소방안전), 서비스제공(정보제공서비스, 주차·입실·숙박·

취사·부대서비스), 지원프로세스(서비스품질시스템, 서비스 모니터링)등이다.

순천만에코촌은 이번 인증으로 ▲서비스역량 강화 ▲소방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 ▲사후관리 강화 ▲홍보역량 강화 등 앞으로 3년 동안 관광공시로부터 체계적인 품질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순천만에코촌은 '2014년 한옥스테이 선정' '2016년 여성가족부 최우수등급 청소년수련시설' '2018년 환경부 저탄소발전국 인증' 등으로 호평을 받아왔고, 이번 인증 통과로 국내 유일 지자체 직영 한옥형 유스호스텔로서의 진가를 더욱 높게 됐다.

순천=김승호 기자

## 최고 명품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 본격 채취

광양시는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을 오는 25일부터 채취·판매한다.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를 등극한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인체에 유익한 무기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특히 게르마늄 성분인 타 지역산에 비해 월등히 많아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국 제1의 고로쇠 수액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제과정을 거친 수액만을 시중에 유통·판매토록 하고 있다.

특히 0.5L, 1.5L, 4.5L PET 등 다양한 규격의 소포장용기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380여 농가가 112만 리터의 고로쇠를 채취해 34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이들러 매년 낡고 노후화된 채취호스 및 집수정 교체작업과 정제시설 확충을 통해 품질 관리에 나가고 있다. 또한 농가별 채취량에 맞춰 용기를 공급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